

보도시점: [2024. 10. 11.\(금\) 14:00 이후](#) / 배포: 2024. 10. 11.(금)

새만금 탄소 중립, 해조류 블루카본에서 답을 찾다

- 개발 동력 확보를 위한 전문가 포럼 3번째 해조류 산업 분야 과제 논의
- 기후변화, 탄소중립 대응한 ‘해조류 육상 스마트팜’ 구축 필요성 제언

- 새만금개발청(청장 김경안)은 10월 11일 ‘해조류 육상 스마트팜 시장 동향과 미래’를 주제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.
 - 이날 포럼에는 해조류 분야 전문가인 원광대학교 최한길 교수가 참석해 해조류 산업 동향과 시장 성장 가능성 및 스마트 육상 양식 기술 도입의 필요성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.
- 최한길 교수는 최근 세계은행(World Bank)에서 발간한 ‘2023년 글로벌 해조류 시장 보고서’를 언급하면서,
 - 2030년까지 해조류 시장 가치는 약 15조 9천억 원(118억 달러)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, 식품을 넘어 애완동물 사료, 바이오 섬유 및 플라스틱,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강조했다.
 - 또한 김, 미역 등 해조류가 신규 탄소흡수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탄소중립,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해조류 산업을 새만금에서 주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.
- 이어서 “최근 해일 등 자연 재난과 해양오염 등으로 인한 해조류 품질, 공급 물량 등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육상 스마트팜에 주목해야 하며 이에 대한 육상양식 연구개발 및 시설 구축 등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.”라고 말했다.

- 특히, 일본 등 해외 국가에서는 파래류 등 다양한 품종을 양식, 제품화 하는 반면, 우리나라는 김, 미역 등 종묘생산에 한정되어 있어 향후 육상 해조류 양식종의 다품종화 및 스마트 양식 기술 도입 등 여건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.
- 참석자들은 바다의 반도체로 불리는 김이 특히나 미국, 유럽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속해서 공급이 가능한 맞춤형 시설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.
- 또한, 새만금 국가산단 내 수산 식품 수출가공단지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, 특히 국내 김 육상 스마트팜 선도기업이 입주를 앞두고 있어 기술 이전, 다품종화 등 해조류 산업 육성에 새만금이 최적지라고 주장했다.
- 새만금개발청 조홍남 차장은 “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해조류 블루 카본 IPCC(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) 국제 인증 획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.”라면서,
 - “해조류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새만금이 탄소 중립과 기후 위기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개발사업국 사업총괄과	책임자	과 장	김민수	(063-733-1320)
		담당자	서기관	김현주	(063-733-1322)
			주무관	우스미	(063-733-1324)



더 아픈 환자에게 큰 병원을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개변된 질환은 동네 병+의원으로
 대한민국정부 ☎129 / www.e-gen.or.kr

